

에너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시설투자동향 및 에너지절감사례



에너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시설투자동향 및 에너지절감사례

우리 협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한원희 부장을 초청해 시설투자 동향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절감 활동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동향과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절약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에너지절약사례에 따르면 LNG보일러 배가스열 회수, 발전보일러 내식성 열교환 설치, 초순수 SYS용 원수를 공장 저온 폐열로 가온공급, TVR기술을 이용한 절약설치사례 등이 있었다.

이 내용 중 한 사례를 소개하면 LNG보일러 배가스열 회수의 경우 절탄기를 공기에열기 전단부에 설치하는 것과 후단부에 설치하는 것의 절감결과가 달랐는데 전자의 경우 투자비는 4,300만원에 회수기간은 4개월이었으며 연간 절감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투자비는 3억 5,000만원에 회수기간은 1년 3개월이었지만 연간 연료비 절감액은 2억 7,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동향에 따르면 전기구동식 히트펌프가 2,342건 342억5,3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든 면에서 가장 많았고 지원 건수만 볼 때 조명절전장치가 129건으로 2순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소형빙축열기기 118건, 가스냉방시설 98건, 축열식냉방기기 96건, 노후보일러개체 59건, GHP 56건, 폐열이용교환가열장치가 52건을 차지했다.

중국 ESCO사업 관계자 공단 방문 삼성에버랜드, 화인테크 등 사업브리핑

한편, 한원희 부장은 공단에서 18년 동안 진단업무만 맡아온 진단전문가로 주로 대기업 진단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발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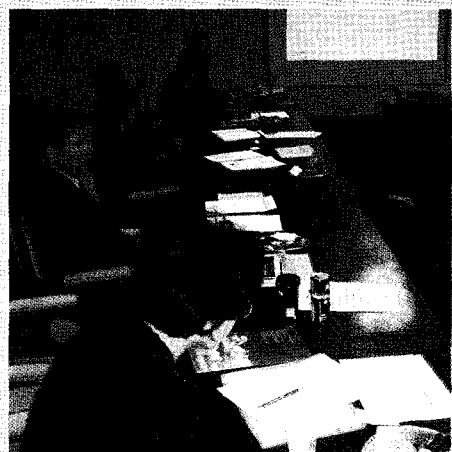
중국 ESCO사업 관계자 공단 방문 삼성에버랜드, 화인테크 등 사업브리핑

지난 1월 25일 중국 ESCO사업 관계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 한국 ESCO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양국의 ESCO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협회 장재련 사무국장을 비롯해 회원사인 삼성에버랜드, 화인테크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자사의 ESCO사업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중국관계자들은 한국의 ESCO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향후 공동기술세미나, 상호방문 등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에너지관리공단 한원희 부장 초청강연 모습



▶ 한·중 ESCO 관계자들이 만남날